26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한국어 버전 '캣츠' 광주 공연에는 1만여명의 관객들이 다녀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뮤지컬 '캣츠'·'이미자 공연' 성료

광주·전남 관객 문화의 진수 만끽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대규모 문화 행사가 지난 주말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2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첫 무대를 가진 한국어 버전 '캣츠'는 26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두 7차례 공연된 '캣츠'를 찾은 약 1만여명의 관객들은 그리자벨라의 '메모리' 등 다양한 고양이들이 전하는 춤과 노래에 빠져들며 뮤지컬의 진수를 만끽했다.

23일 목포 시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미자 노래 인생 50주년 기념 공연 '전설'에는 모두 2천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이미자는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동백 아가씨', '목포의 눈물', '흑산도 아가씨' 등 30여곡을 열창했고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특히 이날 공연장에는 자녀들로부터 티켓을 선물 받은 60~70대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어 눈길을 끌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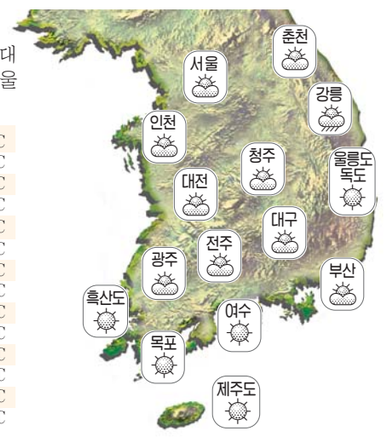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46분 해짐 19시15분 달뜸 06시47분 달짐 21시58분

구름 사이 봄 햇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6/17℃
목 포	구름 조금	7/16℃
여 수	구름 조금	7/17℃
완 도	구름 조금	7/18℃
구 례	구름 조금	4/17℃
해 남	구름 조금	5/17℃
장 흥	구름 조금	4/18℃
고 흥	구름 조금	5/18℃
순 천	구름 조금	7/17℃
영 광	구름 조금	5/15℃
진 도	구름 조금	6/17℃
전 주	구름 많음	5/17℃
남 원	구름 많음	3/17℃
흑산도	구름 조금	8/15℃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3:36 15:36	08:45 20:47
여수	10:13 22:55	04:13 16: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화)	29(수)	30(목)	5/1(금)	2(토)	3(일)
날 씨						
최저/최고	7/21	8/23	8/25	9/26	12/23	12/21

"비리 私學 제재 원칙대로"

징계요구 묵살해도 '어물쩍'…비리 키워

교육청, 행·재정적 조치 적극 행사해야

교사채용 비리로 비난을 받아온 정광학원이 시 교육청의 해임 징계요구를 묵살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징계 방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학비리 징계는 솜방망이=정광학원의 교원 채용비리는 지난 2월 해당 재단 이사장의 고발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곧바로 이사와 이사장, 교장, 교감 등 4명에 대한 해임을 법인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와 이사장만 해임 또는 사퇴하고, 교감은 되레 같은 법인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이들 두 교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신분도 유지하게 됐다.

2005년에도 광주 H학원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1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법인은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무늬뿐인 사립학교 제재=시 교육청은 사학재단이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학측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방패'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다.

▲혜택은 공무원, 제약은 사실상 전무=사립학교 교원은 국가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별다른 권한이 없다. 교원 채용 권한 등 인사권은 사실상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

사학 자체적으로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사학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도 교육청 고위 간부 등의 입김이 공정한 채용을 막고 있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주장이다.

▲대안은 없나=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면 사학의 '제 식구 감싸기식' 전횡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그동안 사학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학들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묵살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시 교육청의 공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다. 올해 광주·전남에선 학교 6곳이 시·도교육청에 교원 선발을 의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려대 올 정시모집 논술 안본다

고려대학교가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서'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09학년도 인문계열 정시모집에서 10% 비율로 반영됐던 논술고사를 2010학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1천566명을 뽑는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70%를 수능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의 인원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수능과 학생부 성적을 50%씩을 반영해 선발한다.

고려대는 또 '특목고 우대' 논란을 일으켰던 수시 2-2 일반전형을 올해와 같은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선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281명을 뽑는 이 전형에서는 모집 정원의 50%를 논술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논술 60%,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하게 된다.

2009학년도에는 이 전형을 진행하면서 1단계에서 학생부를 교과 90%, 비교과 10% 비율로 적용해 모집정원의 17배를 미리 뽑아 2단계에서 논술 등을 치렀다.

고대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이 개선방법을 논의한 후 단계별 모집을 폐지하고 일괄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옛 경영진 복귀 수순"… 충돌 불가피

■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 배경과 전망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하자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88년 옛 경영진을 물러나게 했던 당시 학원민주화운동의 주역들로 이뤄진 '조선대 민주동우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에 더 이상 대학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6개월 임시이사파견은 또 다른 분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3단체도 성명을 통해 조선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이사 재파견 강행에 따른 교과부와 조선대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이사 선임 및 파견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대립이 불가피하다.

◇임시이사 재파견 배경=사분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끝에 우선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는 광운대에 대해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했다.

사분위는 지난 해 6월 말 이들 대학의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도모할 것인지를 심의해왔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들 간 의견대립과 임시이사 재파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심의가 지연됐고,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 10개월간 이어졌다.

교과부는 정이사 선임 논의는 한층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이사를 재파견해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아보자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임시이사는 '6개월 이내'의 임기이며, 정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바로 해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는 학교가 가장 안정된데다 정이사 체제 요구가 강한 대학(조선대)에 먼저 임시이사를 파견, 사학 문제를 교과부 의도대로 마무리 지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반발 격화, 정이사 선임 진통 불가피=1988년부터 무려 21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조선대는 그동안 학생모집률과 취업률, 교원충원율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정상의 사학으로 성장시킨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산시켜 버렸다며 분노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사회 공백을 막고,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하지만 조선대 구성원들은 옛 경영진의 복귀를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조선대와 재파견될 임시이사와의 충돌은 물론 6개월 이후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 7명이 옛 경영진과 혈연·학연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이사 선임시 조선대와 교과부 간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성 율어·겸백 광산

석면 실태 조사 착수

폐광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광산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민간연구기관에 의뢰해 2009년 4월까지 보성군 율어광산과 겸백광산 등 전국 22개 폐석면광산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지역 폐석면광산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석면질환 소견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보성군 율어·겸백 광산 등 20개 광산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인 개황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율어·겸백 광산은 지난 1989년 12월과 1991년 9월에 각각 폐광됐으며, 다른 20곳의 폐광과 달리 광구의 면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